



○무문관 수행자를 위한 음식공양을 비롯해 시중 청소, 채소밭·화단 가꾸기, 불우이웃 돕기, 성지순례 등 무문관봉사단의 모든 활동은 '마음공부'의 일환이다. 행사 스님과 함께 공양간에서 설거지하는 회원들.

무문관 수행자의 '외호 대중'

이 구성된 이후 매일 5명씩 조를 짜 무문관 수행자를 위한 음식 공양과 108배 정근, 참선 등으로 정진하고 있는 재가 수행자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로 있는가?"

선원장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우는 정성으로 스님들의 공양을 차려다 보니 음식의 맛이 없을 리 없다. 봉사단이 차리는 공양은 무문관 수행자 7명과 선방의 수좌 5명, 사중 스님 4명 등 스님 16명과 동안거 결계 참여대중을 합하면 40여명분이 넘는다.

량의 잔디밭과 꽃밭을 청소하고 채소밭을 가꾼다. 집에서 가져온 거름과 한약재 등으로 가꾼 무우, 고추, 배추 등 유기농 채소는 생명력이 듬뿍 담겨 있어 한 끼만 먹는 수행자들에게는 요긴한 공양물들이다.

선해월(46, 서귀포) 보살은 "남에게 보여주는 물질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힘이 없이 행하는' 무주상(無住相) 보시가 더욱 참된 봉사라는 생각에 따로 회장이나 책임자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법 자체이기 바란다는 반아월(51, 서귀포) 보살은 "머리로 불교를 하지 말고, 몸으로 신심 일으키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는 선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수행의 좌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봉사단은 사찰재정이 부족할 때는 봉사단에서 된장을 팔아 보충하는 일도 마다않는다. 사찰에서 장례를 지내는 불자가 있으면 함께 장례 준비를 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한다. 남국선원의 봉사자들은 어느덧 무문관의 든든한 외호 대중이 되어있었다.

서귀포=김재경 기자

신행 365일 이제 실천이다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미용사인 윤평희, 서간회(56)씨는 동남대 친구다. 둘은 벌써 7년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출장 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미용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비탈길, 골목길을 헤매는 일도 잦아진다. 이들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우리 주위에는 "남들은 때때로 보시도 잘 하는데,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시도 못 한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돈을

11월 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 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필요한 의약품을 나눠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불자 의료진 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도 매주 일요일 강남 봉은사에서 무료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다. 매주 내과, 치과, 안과 및 한의사들이 돌아가며 진료를 한다. 한국세무사불자회 역시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또 사법연수원 다트마법우회는 매주 토요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운전불자연합회는 관광 봉사, 차내 장기기증 캠페인 등 지역별 봉

"경제적 여유없어..." 잘못된 생각

몸과 마음 있으니 재물 탓 말아야

내는 것만 보시의 전부로 여기는 풍토도 문제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핑계다.

재물 보시만 보시라 아니라 운씨나 서서처럼 자신의 전문 기술을 살려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엄청난 보시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장 불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불자약사보리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와 함께 약품을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활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꼭 전문직이나 가능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넌타'라는 노파를 향한 돈으로 등 하나를 밝힌다고 한다. 동냥할 기운만 있어도 보시할 힘은 있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은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무 것도 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과 마음이 있으니 보시할 재물이 없을 것 같지 않다. 부처님께 서는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 (인과경)고 했다.



○보시는 돈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단원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바라밀현장 남국선원 무문관봉사단

8일 간간이 싸락눈 섞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에 도착한 제주 서귀포 남국선원은 선불장(選佛場)의 엄숙함과 남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간직한 비경으로 다가왔다. 대웅전에 참배하고 선원장인 혜국(현국)



선불장(選佛場) 남국선원 무문관

2006년까지 방부 마감, 대기자 줄이어서

한국불교의 법맥을 잇기 위해 1년동안 문을 걸어잠근채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용맹정진하는 남국선원 무문관 수행자들. 1994년 혜국 스님이 일타 스님을 조실로

"몸으로 신심 일으키는 불자 될 터"

봉사는 부처님 향해가는 '마음공부'

보살들이 3명의 행자 스님들과 어울려 부지런히 공양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공양주가 아닌 평범한 신도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무문관 봉사단' 회원들이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93년 선원 건립을 계기로 봉사단

선불장(選佛場) 남국선원 무문관

2006년까지 방부 마감, 대기자 줄이어서

한국불교의 법맥을 잇기 위해 1년동안 문을 걸어잠근채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용맹정진하는 남국선원 무문관 수행자들. 1994년 혜국 스님이 일타 스님을 조실로

코시고 문을 연 무문관은 3

경의 방과 사위실 및 화장실 7평 등 한 방이 11평 규모로, 2층 건물에 모두 8개의 방(2층에 30명 수용규모)의 대중관 운영하는데, 보통 1년이 지나면 수행자

들이 13kg 정도 체중이 빠질(일종식이 원칙)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현재 3년간 무문관을 나오지 않고 있는 성효, 현진 스님과 정목 스님 등 선원장급 수좌 등 무문관을 거쳐간 수좌는 60여명. 현재 2007년도 방부를 받을 정도로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 선원장인 혜국 스님은 초창기, 직접 1년간 무문관 정진을 했을 정도로 무문관 운영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평소 신심 좋다고 믿어왔던 불자 한 분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랜 기간동안 각고 끝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말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았더니, 한 때 모처에서 만난 적이 있던 자칭 무소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계통산에 있는 수련단체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어가보지 않은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으나, 몇가지 내가 만났던 느낌으로 도저히 그 단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빙

마음비추기

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밀 완전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불자님의 말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체험에 대해서 너무

행없는 견성, 자기최면에 불과

는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었다. 그 단체에서 가리키는 몸 죽이기와 마음 죽이기 방법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수행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이미 불교의 초기경전에 다 설해 놓은 것이고, 또 견성을

행없는 견성, 자기최면에 불과

를 방문 하였을때, 도인이라는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어떻게 성불이 어떻게 극락이 어떻게'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 뒷 산비탈에 수많은 집승을 기르면서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가

끔씩 그 집승들을 잡아 잔치를 하곤 했다. 또, 견성했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봐도 그렇다. 입으로는 허공이 되었는데, 내가 앉았을 때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쾌락을 좇으면서 무엇하나 버린 것 없이 과거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깨달음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행이 나타나지 않는 무아체험이나 견성은 또하나의 자기최면이며, 황홀경일 뿐이다. 그러나 그 불자는 나의 이런 충고를 귀에 담지 않았고, 끝내는 불교를 떠났다. 안타까운 일련의 일들이 지금 불교 속과 밖에서 행해지고 있다. 寂然

제 16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 호스피스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적으로도 호스피스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현재 정부에서도 호스피스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호스피스 교육을 통한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과 현장에서 접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호스피스 발전의 한 밑거름이 되어 전 국민적 의료복지 향상은 물론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불교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토마을에서는 제 16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각계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정 : 2002년 12월 8일 ~ 2002년 12월 15일, 7박 8일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교육대상 : - 개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인 원 : 선착순 남, 여 25명 ◆연 령 : 38세 ~ 65세 ◆교육수강료 : 19만원
지침물 : 반명암판 컬러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유리컵, 슬리퍼, 편, 개가장삼(스님)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원서마감 : 2002년 12월 5일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정 토 마 을 원 장 능 행 합 장

2003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야간) 원생모집안내

1.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모집학과 : 가.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위기관리, 행정법무(행정사, 경찰사무, 지방행정) 전공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다. 지방정부경영학과 : 지방경영,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정치정보 전공 라.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전공
3.모집인원 : 각학과 ○○명
4.지원자격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03년 2월 취득 예정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5.수업연한 : 가. 2년 과정(4학기 졸업) 나. 비 논문으로 석사 취득 가능
6.진행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7.원서교부및접수 : 가. 기 간 : 2001.11.25(월) ~ 12.4(수) 14:00 ~ 21:20(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대학원 교학과(본교 강의동 5층)
8.전형일시및장소 : 가. 일 시 : 2001.12.7(토) 10:00 ~ 나. 장 소 : 교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9.합격자 발표 : 2002.12.13(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10.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도 상반신 사진 [3×4cm] 3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1.전 령 료 : 가. 전령료 : 50,000원
12.기 타 :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271, F A 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 특 점 : 가. 신입생에 한하여 1년간 수업료 50%를 감면함 나. 공무원, 교직원, 군/경 및 전공관련기관의 근무자는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다. 재학생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